

보도일시 (인터넷) 2026. 9. 20.(일) 11:00
(지면) 2026. 9. 21.(월) 조간

배포 2026. 9. 18.(금) 오후

해양 수도권에 해양 사물인터넷 구축한다

- 11.30.까지 시범사업 협업기관 모집...통신비 무료, 맞춤형 단말기 개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박세웅)은 부산·울산·경남 해역에 해양 IoT 무선통신 시범망을 공동 구축한다고 밝혔다.

* 해양 IoT란 사람·선박·해양 시설물 등에 저렴한 소형 단말기를 부착하여 위치정보 및 센서 정보를 전송하는 해양 특화형 무선통신 기술로서 충전 없이 5년 동안 작동 가능함

그동안 바다에서는 육지와 달리 전파가 멀리 닿지 않고 통신 요금이 높아 현장의 안전과 편의를 높일 다양한 정보통신(ICT) 기술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2030년까지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항로표지 기반 해양 IoT 무선통신 체계 기술개발」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양 수도권인 부산·울산·경남을 잇는 해역 곳곳에 시범망을 구축해 전파가 잘 닿을 수 있도록 등대 시설물에 기지국을 설치하고 전용 단말기를 개발할 계획이다. 2030년 이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제 바다에서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 사업 초기 단계부터 함께 받을 맞춰갈 협업 기관을 모집한다. 해양 수도권에서 해양 시설물과 센서 및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 관련 협회·단체 등의 유관기관은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해양 IoT 시범서비스가 2029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공되기 시작하면 ▲어구 유실 예방, ▲나 홀로 조업 안전 제고, ▲양식장 어류 폐사 방지, ▲항행장애물 2차 사고 차단 등과 같은 해양 현장의 수요들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11월 말까지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로 공문이나 유선(☎051-773-5877) 또는 전자우편(sunguan@korea.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협업 기관으로 선정되면 해양 IoT 통신망 이용과 데이터 모니터링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각 기관의 특수한 수요를 반영해 별도의 협의를 거쳐 특수 단말기 개발을 지원한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해양 IoT 저변 확대는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다양한 해양수산 현장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며, "통신비 무상지원과 단말기 개발 등 파격적인 지원이 제공되는 만큼 해양 수도권 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총괄>	해사안전국 항행정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전기준 (051-773-5870)
		담당자	사무관	이대범 (051-773-5877)
<협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위성통신연구본부	책임자	본부장	장동필 (042-860-6443)
		담당자	PL	조성철 (042-860-5682)

해양수도권에서 해양 사물인터넷을 이용할 해양IoT 협업기관 모집 안내

해양IoT란? 해양수산부 공공용 주파수를 활용해 통신비 부담 없이 먼 바다까지 장비와 센서를 연결하는 무선통신기술로서 소형·저전력·저비용으로 단말기를 제작하여 위치 정보 및 센서 기반 저용량 정보 등을 육지까지 전송 가능함

사업 개요 및 신청 안내

 **해양IoT(MIoT) 무선통신 인프라:** 450MHz 공공 주파수를 활용해 해상 30km까지 통신비 없이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스마트 통신인프라입니다.

 **2026년 9월 ~ 11월 신청 접수:** 부산·울산·마산 해역 내 시설물/센서를 운영 중인 기관 및 단체라면 공문/유선/이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처) 해양수산부 행정정보정책과 ☎ 051-773-5877, sunguan@korea.kr

 **참여 기관 지원:** 통신망 및 모니터링 환경 무상 지원은 물론, 필요 시 R&D 예산을 통한 특수 단말기 개발까지 지원합니다.

